

최근 한국영화의 성풍속도

박정호 | 중앙일보 문화부 기자

지금 충무로에는 성풍속도가 푸짐하다. 또 저마다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종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만남, 이른바 금단의 관계를 속속 허물고 있다. 그러나 에두아르드 폭스의 『풍속의 역사』 같은 사례 나열이 아닌 앵겔스의 『가족의 역사』처럼 연애와 사랑의 실체, 즉 그 뜨거운 관계의 치사한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기다려진다.

미술 같은 유혹, <연애술사>

여담으로 얘기를 시작한다. '연애는 기술, 사랑은 미술이다'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운 100% 기획영화 <연애술사>에 나오는 장면 하나. 자신들의 질펀한 정사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주범을 찾으려고 전국 여관촌을 돌아다니는 미술사 우지훈(연정훈)과 여교사 구희원(박진희)은 당혹스런 상황에 봉착한다. 예전에는 분명 모텔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불과 몇 해 만에 10여 개로 늘어난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성풍속도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모텔, 사실 요즘 모텔은 청춘들의 밀실, 혹은 불륜 커플의 은신처만은 아니다. 상이탑 주변의 모텔은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사용되고, 집안의 사랑에 물린 일반 부부들도 보다 색다른 경험을 위해 모텔을 찾곤 한다. 그래도 고 속도로나 국도 주변에 가로수처럼 늘어진 모텔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넘쳐나는 우리 시대의 섹스를 상징한다. 때로는 1회용 치약처럼 소비되고, 때로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서처럼 가슴을 설레게 하는 장소로 기능한다.

지금, 여기, 한국 사회의 사랑은 모텔에서 시작해 모텔에서 끝나는지도 모르겠다. 이왕 시작한 여담. <연애술사>는 출연 배우만큼이나 모텔을 헌팅하는 데 애를 먹었다. 당연하다. 전남선녀의 애티는 사랑을 방해하는 영화 촬영을 어느 모텔이 환영하겠는가. 제작팀이 겨우 찾아낸 대구시 인근의 테마 모텔 '3f10'. 무인 시스템에 객실 30여 개를 갖춘 현대식 여관이다. 방마다 '조선남녀 상열지사' '아! 먼로여' '잘 익은 앵두' 같은 기묘묘한 이름으로 디자인됐더니 역시 '현실'을 앞서가는 '시장'의 파워는 대단하다. 모텔을 찾는 손님들의 가려운 곳을 먼저 긁어주는 자본주의의 엄청난 상술, 그 날고 기는 발상 앞에선 그저 혀를 내두를 뿐이다.

뻘뻘한 작업남, <연애의 목적>

이제, 본론, 영화로 돌아가자. 모두에서 밝힌 것처럼 최근 충무로에는 '사랑의 기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쳇말로 '작전'이다. 나쁘게 표현하면 이성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사악한 전략이요, 좋게 표현하면 자기의 진심(?)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주체성의 발현이다. 논의의 중심에는 올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대된 홍상수 감독의 <극장전>과 최근 젊은 여성 관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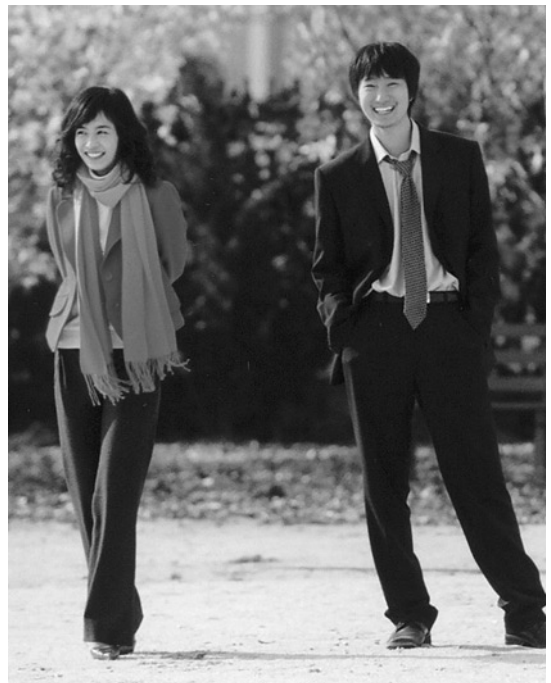
천세환 감독의 <연애술사>

을 사로잡은 한재림 감독의 <연애의 목적>이 있다. 두 영화 모두 일상에서 마주친다면 두 손 두 발 들고 말 뻘뻘한 남성을 메인 캐릭터로 내세운 반면 유독 극장에선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던 남성상을 구현했다는 평가마저 듣고 있다.

현실과 영화의 괴리, 그건 우리가 밥먹듯이 접하는

일이긴 하지만 두 영화에 대한 호의적 시선은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사랑의 뒤결을 유효적절하게 끄집어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어차피 스크린이란 우리들의 일그러진 욕망의 동의어일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연애의 목적>에 등장하는 교사 유림(박해일)은 말 그대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기자라는 업무상 주로 20대 여성의 영화 마케터를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필자의 국한된 경험이겠지만 그들은 대부분 속이 뒤집



한재림 감독의 <연애의 목적>

힐 정도로 느글느글한 유림의 두 손을 번쩍 들어주려는 태세였다. "유림 같은 남자가 있으면 당장 달려가서 귀를 깨물어주고 싶다. 아니 번쩍 안아주고 싶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번다면 유림 같은 애를 24시간 책상 옆에 다 두고 강아지처럼 키우고 싶다. 아무 일도 시키지 않겠다. 단지 내 옆에 있으면 만사 OK다"라는 말을 서슴

없이 꺼내는 어린 '여동생'을 앞에 두고 잠시 머리가 혼란스런 적도 있었다. 과연 그토록 유림이 매력적인 캐릭터인가. 40대 중반인 필자의 입장에서선 유림은 소위 구제불능형 인간이다. 내 동생이나 혹은 조카가 유림과 비슷하다면 당장 달려가 주재님께 회초리를 들고 싶은 그런 무책임한 인물이다.

유림의 관심은 오직 여성, 그것도 섹스다. 물론 보는 여성마다 족족 달려드는, 즉 여자와 버스는 언제라도 온다, 그러니 절대 연연하지 말라는 그런 도가적 남성이 아닌 자신이 한번 겨냥한 목표물을 향해 하이에나의 저돌성으로 달려드는 집요한 인물이다. 열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을 온몸으로 실천하듯 유림은 자기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교생 홍(강혜정)을 향해 쓸 수 있는 무기란 무기는 총동원한다. 그중 가장 결정적 무기는 상상 밖의 솔직함이다. 어차피 결혼은 제도요, 관습이고 내가 당신에게 끌리는 데 뭐 주저할 게 있느냐고 홍을 채근한다. 극장의 불이 꺼지자마자 시작되는 대사, 즉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에게 "지금 젖었어요?"라고 눈 한번 깜짝하지 않고 말하는 유림은 분명 그간 한국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독특한 캐릭터임에 분명하다.

그의 대담함과 솔직함에 관객들은 박수를 친다. 발정기에 접어든 동물들이 목숨을 걸고 상대에게 달려들 듯 유림은 교사라는 '숭고한' 직분을 잊어버리고 교정에서, 교실에서, 수학여행 버스에서, 그리고 횃집에서, 자신의 포획 대상인 홍을 잡기 위해 정치한 그물을 부단하게 던진다. 관객들은 오히려 평범한, 즉 옛 사랑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암전만 떠는 여성 홍에게 답답함을 느낀다. "홍이 언젠가 넘어가겠지" 하는 기대심리에서 영화를 보는 측면도 강하다. 물론 대학 시절 그가 사랑하던 유부남 조교에게 쉽게 지울 수 없는 인생의 상처를 받은 홍의 캐릭터가 지극히 상투적이고, 또 진

부하지만 그럴듯한 상업영화인 <연애의 목적>은 그런 흥마저도 유림의 저돌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느낌이다. 유림은 주변 사정 보지 않고 자기가 짝은 먹잇감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동물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 한정된 영역 안에서 수십 마리의 암사자를 거느리는 '라이언 킹' 처럼 되고 싶은 게 유림이 그리고 그리던 '로또복권' 일 수 있겠다.

노골적 대사와 대단한 섹스 묘사에도 불구하고 <연애의 목적>은 허전한 구석도 남긴다. 우리 시대 '작업남'의 성격을 정교하게 재현한 영화의 미덕에도 불구하고, 그를 넘어서는 사회적 함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림과 홍 사이에서 부각되는 건 파워 관계다. 유림은 남성 교사(지배자)와 여성 교생(피지배자)이라는 엄연한 권력사슬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유림의 파렴치한 행동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공감을 표하는 교육청 감사관들도 사실 유림의 지원군일 뿐이다.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 시리즈>를 빌리면 남성과 여성의 균형, 즉 포스의 조화가 깨진 어두운 세상이다.

그러나 <연애의 목적>은 섹스의 정치경제학에는 둔감한 듯하다. 대학 조교를 사랑했다가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교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홍의 캐릭터가 비중 있게 제시되나 그건 영화 전체를 놓고 볼 때 극히 일부일 뿐이다. <연애의 목적>은 사랑의 권력학, 사랑의 동물학, 사랑의 육체학에 집중한다. 첫사랑에 실패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던 홍이 잃었던 자신을 회복하는 것도 비슷한 계기에서다. 섹스라는 '만병통치약'의 인류학적 접근은 십분 살아 있지만 그 토대가 되는 두 인물의 경제적 함수는 또렷하게 각인되지 않는다. 자신을 탐하는 유림에게 "50만 원을 달라"고 갑작스레 요구하는 홍의 엉뚱한 반응은 관객의 긴장을 풀어주는 '코믹 릴리프' 이상을 넘지 못한다.

최근 충무로에는 ‘사랑의 기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쳇말로 ‘작전’이다. 나쁘게 표현하면 이성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는 사악한 전략이요, 좋게 표현하면 자기의 진심(?)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주체성의 발현이다.

사실 사랑과 섹스는 대단히 경제적 행위다. 지저분한 정략결혼이나 원조교제는 들쭉치고 사랑만큼 치사한 교환행위도 없다. 사랑 고백이나 성적 묘사가 갈수록 현실에 가까워지는 한국영화지만 사랑의 기초인 돈의 기능을 알싸하고, 요즘 말로 쿨하게 표현하는 영화는 아직 드문 것 같다.

안개 같은 작업남, <극장전>

이런 기준에서 볼 때 홍상수 감독의 <극장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연애의 목적>의 유림처럼 <극장전>의 예비감독 감동수(김상경)도 정체를, 아니 그의 행동 이유를 분명하게 파악하기가 힘든 ‘작업남’이다. 한때 잘 나갔던 스타 배우 최영실(엄지원)을 만난 첫날에 뜬금 없이 “사랑해요”를 연발하고, 또 영실을 결국 여관까지 끌고 가는 동수의 캐릭터는 유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충무로에서 몇 안 되는 작가로 분류되는 홍상수 감독의 전작에서 자주 등장했던 남성 캐릭터처럼 동수는 ‘젓이 덜 떨어진’ 남성이다.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은 선배 감독에 대한 열등감에서, 또 현재 자신의 누락한 위치를 보상하듯 그는 맹목적으로 여성에게 달려든다. 또 그런 수상쩍은 남성 동수에게 여성 캐릭터 영실은 싫은 듯 좋은 듯 애매한 태도를 유지하며 결국 자신의 자궁을 열어준다.

동수의 어린 시절 초상화라고 할 수 있는 전상원(이기우)은 어쩐가. 수능시험을 막 마친 19살의 상원은 동수와 180도 다른 소심남이다. 먹잇감(그것도 적극적으로 반응할 준비를 마친)을 눈앞에 두고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원은 나이가 들어(물론 동수와 상원이 동일 인물이란 근거는 없다) 맹목적 사냥꾼으로 돌변하는 동수의 또 다른 자아일 수 있다. 극과 극이 통하듯 동수와 상원은 동전의 앞뒤와 흡사하다.

결국 섹스, 나이가 사랑이란 고차원 방정식, 아니 미

로 같은 함정에 빠진 남녀의 관계를 역사를 초월한 원초적 상상력으로 풀어가는 재능은 뛰어나지만 “정말 독특한 캐릭터네” 이상의 현실적 설득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32세 이혼녀 문희(서정



홍상수 감독의 <극장전>

와 19세의 법적 미성년 현(심지호)의 ‘비범한’ 사랑을 주목한 박철수 감독의 <녹색의자>에서 느끼는 갈증도 엇비슷하다. 나이드은 여성과 젊은 남성의 사랑이란 ‘역(逆)원조교제’에 대한 세간의 편견을 허물어뜨리고, 진실한 사랑, 아니 육체적 관계에서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감독의 진정성은 확실하게 드러나나 그게 사랑의 모든 건 아닐 것이다. 남의 사랑을 자기 잣대로 해석하는 협소한 사고를 비판하는 기조에는 물론 동의한다. 하지만 문제는 전개 방식이다. 남녀에 대한 그런 생물학적 해석은 “섹스 커뮤니케이션을 탐구하고 싶었다”는 감독의 의도를 희석시킨다.

지금 충무로에는 성풍속도가 푸짐하다. 또 저마다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종전에 표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만남, 이른바 금단의 관계를 속속 허물고 있다. 그러나 에두아르드 폭스의 『풍속의 역사』 같은 사례 나열이 아닌 앵겔스의 『가족의 역사』처럼 연애와 사랑의 실체, 즉 그 뜨거운 관계의 치사한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기다려진다. 물론 필자는 때늦은 마르크시스트가 아니다. ✨